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 29주일
제34권 47호(가해) 2014년 10월19일

[묵상]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할 구실을 만들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인간 삶의 근본은 하느님이시므로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은 하느님께 귀속된다는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세상의 욕심에 한발을 디디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대로
적당히 신앙과 일상을 넘나드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영적 깨우침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124위 시복특집 < 7 > 최창현 요한(1759~1801년)
...이제 천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날에
천주를 배교하였던 것을 통절히 뉘우치면서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서울의 한 역관 집에서 태어난 최창현 요한은 조선교회 초창기에 권일신의 인도로 입교한 후 20여 년을 평신도 지도자로 헌신하다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황사영은 「백서」에서, 최창현의 됃됨이가 매우 평화로웠고 몸가짐이 조심스러웠으며 일 처리에 공명하고 부지런하기가 한결같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최창현은 중인(中人) 신분이었음에도 가성직자단(假聖職者團)의 일원으로 신부 역할을 하는 등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적 신자들이 양반 신분의 학자 중심이었음을 감안할 때, 양반이 아닌 그가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가성직 조직이 해체되고, 1791년 신해박해로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이탈하자 최창현은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교회의 총회장 격으로 교회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문모 신부 입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창현은 무엇보다도 교리서의 한글 번역과 보급 등문서 선교 활동으로 초기 교회 발전에 크나큰 공을 쌓았습니다. 당시 서민 대중은 어려운 한문 교리서를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에, 최창현은 1636년 중국에서 발간된 예수회 디아즈 신부의 「성경직해」를 한글로 번역해 유포시켰습니다. 이후 한글판 「성경직해」는 조선교회에서 거의 1세기 동안 애용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미 주신부로부터 총회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공공연하게 활동해온 최창현은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고, 체포되어 곧바로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의금부에서 처음 문초를 받을 때, 최창현은 한때 마음이 약해져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 다시 용기를 회복하여 전날의 약했던 마음을 진실히 뉘우치며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천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날에 천주를 배반하였던 것을 통절히 뉘우치면서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천주교신자재판기록」 중에서) 최창현은 끝으로 ‘자신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당에 다니고 싶어서 사무실로 문의하니까 “교리반 모집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 교리반 봉사 중에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숨통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하다는 심정,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이 주님께는 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본당 공동체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느냐.”는 형제님의 글에서 “지금 교회는 1마리의 양만 돌볼 뿐, 밖의 99마리를 땡개치고 있다.”는 교황님의 질책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언제쯤이면 가톨릭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사라지고 교우들이 자갑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될까요? 스스로 성당을 찾은 이에게 “교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구실로 거부하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황님은 교회 개혁의 첫째로 우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사도적 미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선교는 교리실을 채우려는 방편이 아닙니다. 교리 일정에 맞춰져야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선교에서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행위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교리교육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성당 생활이 서툴고 어색하지 않도록 다가가 살피주는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를 받아야만 성당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은 부끄러운 무지입니다. 몇 군데 확인한 결과 이러한 반응을 보인 본당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꺾인 형제님, 그래도 몇몇 본당에서 보여준 친절이 선교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 힘냅시다.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공동체에서 전례 예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 지역 공동체의 환경에 따라 예식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유일한 감사 기도였던 ‘로마 전문’ 외에 여러 형태의 감사 기도를 새로 만들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사 시작 시 주례 사제의 간단한 말, 참회 예식, 도입 기도 등에는 주례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가된 것 외에는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시킬 수 없습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햇볕 한 줌] 외줄타기 곡예사

외줄타기의 달인이라 불리는 곡예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에게 엄청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아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폭포의 한쪽 끝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사람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곡예사는 “여러분 제가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모두 그렇다고 말하며 환호했습니다. 곡예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건너갈 때 제 어깨에 타실 분 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깐 저를 믿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때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앞으로 나오며 어깨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곡예사는 아이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목마를 대었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길,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곡예사는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외줄타기는 대성공이었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무섭지 않았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뇨. 무섭지 않았어요. 전 아빠가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는 마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둘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아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회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바오로 단장 ☎(310)709-3343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8일(토요일)
- 연도 : 1시30분, 미사 : 2시
- 장소 : 홀리크로스
- 주관 : 평화의모후 한인 천주교회

◆ 제27기 커피 교육 안내

- 일시 : 11월 16일(일요일) 낮 2시 ~6시
11월 17일(월요일) 저녁 6시 ~10시
양일중 택일하여 수강후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천주교회 회의실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사무실)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티켓은 본당사무실에 위탁판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10/18(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0/25(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0(금) 오후 7:30 성당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0/18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0/18(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0/10(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0/19(일) 12시30분 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데레사 634-6923 10/17(금) 오전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10/11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404-1607 10/20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병우 마리오 749-3151 10/11(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213-700-6983 10/10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0/10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0/12(일)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0/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원

10월 목주기도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넷째 주일 오후 2시~4시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 ☎(310)749-0278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0월27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 회비 : \$20(1인), \$3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310)781-0021

◆가톨릭신문 홍보 : 오늘 주일(19일)

가톨릭신문은 올해로 미주지역 진출 30주년을 맞아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공동체 신자들이 가톨릭 신문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되고 작은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Virtus Recertification(예전 수강자를 위한 재교육 :영어)
"Keeping the Promise Alive" Training

- 일시 : 오늘주일(19일)오후6시30분~8시

- 장소 : 마가렛 메리성당 Hegarty Hall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멕시코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집합니다

11월 초에 선교팀 15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비록 집에서 잠자고있던 작은 물품도 학용품이 없는 지구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 기간 : 10월 말까지 사무실내 지정장소
- 품목 : 모든 학용품및 가방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10월 울뜨레아 정기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10월26일 일요일 오후4시
 - 장소 : 성당 강당
 - 문의 : 남해나 분다 ☎(310)384-3289
- 많은 꾸르실리스트 선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의 밤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 미주가톨릭 방송(KCBC) 을 들읍시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9시 라디오서울(AM 1650)
 - 매주 일요일 아침 6시~8시 우리방송(AM 1230)
- 청취소감및 나누고 싶은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franciscove@yahoo.com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9일(주일) * 토런스서1,3 : 샌드위치(\$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9학년)
- 10월26일(주일) * 토런스 북1 : 소고기우거지국밥(\$3)
* 주일학교 : 칠리덕 (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안태갑 이숙화 정지숙 최	김원호 엄세종 이일길 조소영 최	김정희 엄정자 이재철 조준제 한	배재일 원건희 임연조 최혁수 한	송영미 윤석구 전정자 최열자 황철수	안재만 이민상 정정현 최영신	성전현금	권태만 엄세종 정정현수	김원호 엄정자 정지숙	김정희 원건희 조준제	배재일 이민상 최열자	안재만 이숙화 최영신	안태갑 이일길 한장환				
	합계 : 2,360							합계 : 1,180									
주일미사 현금 : \$2,713							한남체인 기부금 : \$320							감사현금(정미영) : \$50		주일학교 : \$50	

내가 불완전해도 그와 안 통해도

교황님의 방한 이후 많은 이들이 교회와 하느님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쉬던 교우들이 교회 소를 찾고 예비신자 교리반은 넘쳐 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황님 자랑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몸이 움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각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큰소리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을 하다보면 불완전한 내 모습에 망설임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이들에게 당신의 복음선포 사명을 맡겨 주셨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새겨봅시다.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마태 28,16) 배반자 유다가 빠진 ‘열한 제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마티아 사도가 뽑히기 전이고 (사도 1,12-26 참조) 완벽한 숫자인 ‘열둘’에서 하나가 빠진 모습입니다. 이 ‘불완전’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완전한데 이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에 나의 부족함은 복음 선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릴래아지방은 유다 지방과 달리 이방인이 많아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마태4,15)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교 여행의 시작이 갈릴래아로부터인 것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모든 민족들’(마태 28,19)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느낌과 사상, 습관, 말, 생각 등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선교 사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해도 그와 안 통해도 해야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여기서 ‘제자’는 ‘하늘 나라의 제자’(마태 13,52)이고 ‘예수님의 제자’(마태 27,57)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이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계명’ 준수 교육이고 실천입니다. ‘계명 준수’는 신앙의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 강귀석 신부 / 명일동성당 주임

한 걸음 한 걸음

산에 함부로 길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발길로 단단하게 다져진 길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산만 그럴겁니까.

내 걸음이지만 선불리 내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길이라고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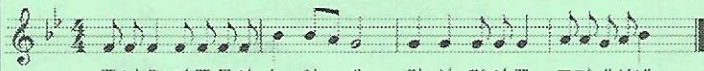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1반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용식 베드로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변혜경 올리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철우 야고보,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 & 김임주 안나, 송근섭 발렌티노, 박순용 요안나, 민라파엘 & 민가브리엘,
	(생) 이재숙 테레사, 김기준 안젤라, 변혜경 올리안나, 김형미 테레사, 송영원 크리스티나, 박찬호, 현시영 요셉, 송 카일리, 오창애 안나, 김상진 요셉피나, 김영연 가누도, 박음전 아녜스, 오창근 베드로 신부 & 오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45, 1.4-6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 앞 - 에 당 신 정 의 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데살로니카(Thessalonians) 1, 1-5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이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말씀을 굳게 지녀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2, 15-21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때 먹여 살리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215	215
봉헌	264	264	268
성체	382	281	301
파전	383	218	221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 1).

제2장 성령 이해의 역사

2. 성령에 관한 논쟁과 교회의 가르침

초대 교회는 성부와 성자의 영인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점차로 증가하였다. 신약 성경은 이 세 분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서술할 뿐이었다.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코린 13, 13) 하고 인사한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 명령도 같은 구조를 드러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 19).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박해 시대의 교회나 교부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하느님으로 공경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경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단도 대두되었다.

1) 성령에 관한 이단과 교부들의 가르침

2세기 말에 ‘양태설’ (樣態說) 을 내세우는 이들이 등장하였는데, 노에투스(†200년경), 프락세아스(†200년경), 사벨리우스(†220년경)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유일신 신앙을 보존하는 동시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한 번은 아버지로, 한 번은 아들로, 한 번은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신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느님의 여러 가지 표현, 또는 여러 가지 출현 양태일 뿐이다. 이는 매우 한 사람이 가면(假面)을 바꾸어 쓰면서 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테르툴리아누스(†220년경)는 양태설을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성부수난주의자’ (聖父受難主義者)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성자가 아니라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양태론을 배척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본질상 동일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셋의 관계를 ‘하나의 실체(實體) 세 위격(位格)’ (una substantia tres personae)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 양태론을 주장하던 사벨리우스와 그의 이설(異說)은 215년경에 교황 갈리스토 1세(†222)에 의해 거부되고 단죄되었다.

<◆계속>